

## 불공정 경험과 체제정당화 신념의 관계에서 사회계층의 조절효과\*

김 지 수<sup>1)</sup>      김 영 주<sup>2)</sup>      나 진 경<sup>1†</sup>

<sup>1)</sup>서강대학교 심리학과

<sup>2)</sup>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본 연구에서는 불공정 경험과 체제정당화 신념의 관계가 사회계층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성인 335명을 대상으로 불공정 경험의 빈도, 체제정당화 신념, 주관적 사회계층 등을 측정된 결과, 불공정 경험과 체제정당화 신념의 관계는 개인이 속한 사회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높은 사회계층에서는 불공정 경험을 많이 할수록 체제정당화 신념이 감소하는 반면, 낮은 사회계층에서는 체제정당화 신념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나아가 불공정 경험이 예측하는 체제정당화 신념이 개인에게 적응적인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특히 낮은 사회계층에 주목하여 체제정당화 신념과 정신 건강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결과, 높은 사회계층에서 불공정 경험은 낮은 체제정당화 신념으로 이어지고 이는 정신 건강을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간접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낮은 사회계층에서는 불공정 경험이 높은 체제정당화 신념으로 이어지고 이는 높은 수준의 정신 건강을 예측했다. 그러나 불공정 경험 자체는 정신 건강에 직접적으로 강한 부정적 효과를 가지며, 효과의 크기 역시 체제정당화 신념의 간접 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계층에 따른 불공정 경험에 대한 체제정당화 신념의 차이와 그 심리적 영향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요어 : 사회계층, 체제정당화 신념, 불공정, 불평등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21S1A5A01062956).

†교신저자: 나진경,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E-mail: jinkyung@sogang.ac.kr



© 2023,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타인 혹은 사회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게 되었을 때, 개인의 반응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개인들은 불공정한 대우에 적극적으로 맞서고, 어떤 개인들은 불공정한 대우를 수용하는 소극적인 반응 양상을 보인다 (Takahashi et al., 2012).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불공정한 경험에 대해 이러한 개인의 반응 차이를 가져오는 다양한 변인들이 존재한다(예: Crockett, Clark, Tabibnia, Lieberman & Robbins, 2008; Pillutla & Murnighan, 1996). 그 중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사회계층에 따라 달라지는 반응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불공정 경험을 했을 때 사회계층에 따라 나타나는 적극적, 소극적 대응의 차이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했다. 그 중에서도 불공정 경험에 따른 반응 차이가 개인이 세상에 대해 갖는 신념과도 관련이 있을지 검증하고자 하여 체제정당화 신념에서의 개인차를 사회계층에 따라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높은 사회계층에서는 불공정한 경험을 많이 하는 경우, 이들이 가진 상대적으로 풍부한 심리적/물리적 자원으로 인해 이에 대항하는 것에 가까운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면 낮은 사회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공정 경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반응보다는 체제에 수긍하는 것에 가까운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겪는 불공정 경험이 체제정당화 신념의 수준을 예측한다면, 이러한 체제정당화 신념을 갖는 것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불공정을 경험했을 때 낮은 사회계층에서 소극적인 반응 양상으로 체제정당화 신념이 증가한다면, 이렇게 증가한 체제정당화 신념이 이들의 심리에 일정 부분 적응적인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여 체제정당화 신념이 개인의 정신 건강을 예측하는지 검증하였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체제정당화 신념은 현 체제를 긍정하는 신념으로서 개인의 정신 건강과

관련된 변인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Jost, Pelham, Sheldon & Ni Sullivan (2003)에 따르면 체제정당화 신념은 긍정 정서 수준을 높이고 부정 정서 수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여 개인의 심리적인 적응에 기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체제정당화 신념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불공정에 대항하지 않는 소극적인 반응으로서 체제를 수용하는 체제정당화 신념이 나타나는 것이 개인에게 일정 부분 적응적인 역할을 하여 불공정 경험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불공정 경험이 예측하는 체제정당화 신념이 어떻게 개인의 정신 건강을 예측하는지 또 이들의 관계가 사회계층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증했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개인이 불공정 경험을 했을 때 그들이 속한 사회계층에 따라 다른 반응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본 연구이며, 구체적으로 불공정 경험에 따른 체제정당화 신념에서의 사회계층 차이를 검증했다. 나아가 불공정 경험과 체제정당화 신념의 관계가 사회계층에 의해 조절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불공정 경험이 체제정당화 신념을 통해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이르는 간접효과도 사회계층에 의해 조절되는지 살펴보았다.

#### 사회계층에 따른 불공정 경험에 대한 반응 차이

사회계층은 사회경제적 위계에서 개인의 소득, 교육 수준 및 직업의 위신에 따른 개인의 위치를 의미한다(Adler et al., 1994; Kraus, Park & Tan, 2017). 그리고 사회적 위계 내에서 개인이 속한 사회계층은 개인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Kraus, Piff, Mendoza-Denton, Rheinschmidt & Keltner, 2012).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회적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개인이 속한 사회계층에 따라 상황에 대한 반응 및 행동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김영주, 나진경, 2018). 사회 계층과 불공정 경험에 대해 검증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개인의 사회계층에 따라서 불공정 경험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하는지 혹은 소극적인 반응을 하는지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예: Ding, Wu, Ji, Chen & Van Lange, 2017; Kim, Jung & Na, 2022).

Kim 등(2022)은 관련 연구에서 사회계층에 따라 불공정한 제안에 대한 민감성과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수용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실험 상황에서 독재자 게임(dictator game)과 최후통첩 게임(ultimatum game)을 통해 불공정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 및 행동적 반응을 측정하고, 이러한 반응에서 나타나는 사회계층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낮은 사회계층에 속한 개인은 높은 사회계층에 속한 개인보다 독재자 게임에서 받은 불공정한 대우를 덜 불공정하다고 지각했다. 또한, 불공정 지각에서 나타난 이러한 계층 간의 차이는 최후통첩 게임에서 낮은 사회계층에 속한 개인이 불공정한 제안을 더 많이 수용하는 수동적인 반응으로 이어졌다. 저자들은 이러한 양상을 사회계층이 낮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통제감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대우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Ding 등(2017)의 연구에서도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개인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경제적 소득 수준이 높은 사회 계층에 속한 개인들은 자신에게 불공정한 제안을 더 많이 거절하는 양상을 보였다. 해당 연구를 포함한 다른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높은 사회계층의 특권의식으로 설명한다. 즉, 높은 사회계층은 자신이 남들보다 응당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느끼는 특권의식으로 인해 자신에게 손해인 불공정한 제안을 더 많이 거절한다는 것이다(Ding et al., 2017; Hu, Cao, Blue & Zhou, 2014; Sawaoka, Hughes & Ambady, 2015). 이러한 기존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자면, 높은 사회계층에 속한 사람들

은 불공정한 대우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낮은 사회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불공정한 대우에 직접적으로 맞서기보다는 이를 수용하는 등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대응 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위와 같은 연구들은 주로 불공정한 상황을 독재자 게임, 최후통첩 게임 등을 통해 실험 상황에서 유도하는 연구 방법을 택하여 연구를 진행했으며,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행동적 지표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불공정한 상황을 경험하는 것은 이처럼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개별적 행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개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신념과 관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공정 상황에서의 행동적 반응의 사회계층 간 차이를 살펴본 기존 연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일상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경험하는 것이 개인이 세상에 대해 가지는 신념, 구체적으로, 본인이 속한 사회를 정당화하는 체제정당화 신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 사회계층과 체제정당화 신념

체제정당화 이론(system justification theory; Jost & Banaji, 1994)은 사람들이 현 체제를 정당화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이다. 해당 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현 사회, 경제, 정치적 체제가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인식하기 위해 현 체제를 합리화하는 ‘체제정당화’ 동기를 가지고 있다(Jost & Hunyady, 2005). 높은 사회계층에 속한 이들에게는 현 사회 체제가 이미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현 체제를 정당화하고, 낮은 사회계층에 속한 개인들은 현 체제에서 스스로가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현 체제를 거부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하며, 여러 연구 결과들이 이러한 사실을 보여 준다(예: Brandt, 2013; Caricati, 2017; Caricati & Lorenzi-Cioldi, 2012).

그러나 낮은 사회계층의 경우에도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회를 높은 사회계층에 속한 이들만큼, 혹은 더 높은 수준으로 정당화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존재한다(예: Durrheim, Jacobs & Dixon, 2014; Godfrey & Wolf, 2016; Jost, Banaji & Nosek, 2004; Jost et al., 2003). 이처럼 사회계층이 낮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기존 체제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현 체제가 정당하고 공정하다고 믿는 것은 개인의 불확실함 및 위협 감소 동기와 주류 사회와 연결되고자 하는 관계적 동기를 충족시킨다(Jost, Ledgerwood & Hardin, 2008). 그리고 이러한 동기는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불확실함과 불안정성,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는 낮은 사회계층에서 더 두드러질 수 있기 때문에(Stacey & Green, 1971) 낮은 사회계층에 속한 이들도 높은 수준의 체제정당화 신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Jost, 2017). 또한 개인이 체제정당화 신념을 강하게 갖게 되는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의 낮은 권력 혹은 무력감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더 강한 체제정당화 신념을 가질 수 있다(Van der Toorn et al., 2015).

이러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면, 기존의 사회 체제는 보통 상위계층의 사람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체제정당화 신념은 사회계층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위협과 불확실성을 경험하게 되거나 주류 사회와 연결되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느끼게 되는 경우 낮은 사회계층의 사람들도 강한 체제정당화 신념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낮은 사회계층의 사람들은 불공정한 대우를 경험하게 되면 체제정당화 신념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심리적/물리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불공정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체제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과 더불어

더 높은 수준의 소외감과 무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회계층이 높은 사람들이 불공정 경험을 하게 되면 이는 체제정당화 신념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계층이 높은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체제정당화 신념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심리적/물리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어 높은 수준의 통제감과 주체성을 가진 사회계층이 높은 사람들은(Kraus, Piff & Keltner, 2009) 불공정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그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동기와 행동을 보이기 때문이다(Kim et al., 2022).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불공정 경험과 체제정당화 신념의 관계가 사회계층에 따라 조절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 체제정당화 신념과 정신 건강의 관련성

상대적으로 부족한 심리적/물리적 자원을 가진 낮은 사회계층의 개인은 불공정한 경험을 했을 때 그런 상황에 직접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어렵다. 따라서 이들은 불공정한 상황에서 오는 불편감을 해소하고 심리적 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황을 개선하기 보다는 그러한 상황 및 체제를 정당화하는 전략을 취하게 될 수 있다. 즉, 개인이 체제를 정당화하는 신념을 갖는 것이 심리적 적응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불공정 경험에 대해 체제를 정당화하는 반응을 할 것으로 보이는 낮은 사회계층에서 이와 같은 현상을 살펴보는 의의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불공정 경험과 체제정당화 신념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계층 간 차이가 어떻게 개인의 적응과 관련되는지 탐색했다. 개인이 가진 체제정당화 신념이 개인의 정서 및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현 체제가 정당하다고 믿는 신념은 주로 개인에게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를 갖는다(예: Jost et al., 2003; Jost, Wakslak & Tyler, 2008; Vargas-Salfate, Paez,

Khan, Liu & Gil de Zuniga, 2018; for reviews: Jost & Hunyady, 2005; Jost, 201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Jost 등(2008)에 의하면 체제를 정당화하는 신념을 갖는 것은 높은 수준의 긍정 정서와 만족감, 그리고 낮은 수준의 부정 정서와 죄책감, 좌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ost 등(2003)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체제를 정당화하는 능력주의적 신념을 가진 개인은 자신의 경제적 지위에 대해 더 만족하는 양상을 보였다. Vargas-Salfate 등(2018)의 연구에서도 18개 국가의 데이터를 종단적으로 분석한 결과, 개인이 갖는 체제정당화 신념의 수준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체제정당화 신념은 주로 개인의 삶의 만족도 및 심리적 적응을 일정 부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공정 경험으로 인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체제정당화 신념이 개인의 심리적인 적응, 즉 정신 건강 수준을 예측하는지 검증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특히 현실을 바꾸기 어려운 낮은 사회계층에서 불공정 경험을 했을 때 강화되는 체제정당화 신념이 개인에게 어느 정도 적응적인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사회계층에 속한

개인이 마주하는 불공정 경험의 영향이 체제정당화 신념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불공정 경험과 사회계층이 체제정당화 신념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높은 사회계층에서는 불공정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체제정당화 신념이 감소하고 낮은 사회계층에서는 불공정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체제정당화 신념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했다. 선행연구로 미루어 보았을 때, 높은 사회계층에서는 특권의식(예: Ding et al., 2017) 등으로 인해 불공정 경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적극적으로 체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념을 가질 수 있다. 반면 낮은 사회계층에서는 불공정에 보다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Kim et al., 2022) 불공정에 대항하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신념을 바꾸는 다소 소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체제정당화 이론(Jost & Banaji, 1994)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낮은 사회계층에서 불공정 경험으로 인해 겪는 무력감(Van der Toorn et al., 2015)과 불확실함, 불안정성, 사회적 소외 및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동기(Jost et al., 2008)가 체제를 정당화하는 신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불공정 경험으로 인해 예측된 체제정당화 신념의 수준이 개인의 적응에 대해 갖는 함의를 알아보려고 개인의 체제정당화 신념이 정신 건강에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분석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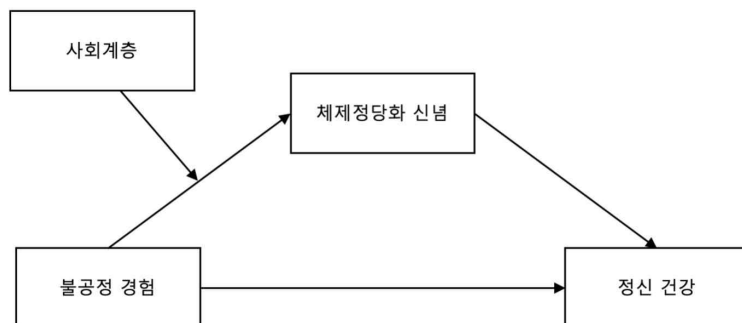


그림 1. 불공정 경험, 체제정당화 신념, 정신 건강 간의 관계에서 사회계층의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

했다.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체제정당화 신념은 개인의 긍정적 정서, 삶의 만족도 등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는 결과들이 있다(Jost & Hunyady,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공정 경험에 의해 예측된 체제정당화 신념의 수준이 정신 건강을 정적으로 예측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낮은 사회계층에서 불공정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체제정당화 신념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면, 높은 체제정당화 신념은 높은 정신 건강 수준으로 이어져서 불공정 경험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전략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검증하고자 그림 1과 같이 불공정 경험이 정신 건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체제정당화 신념의 매개효과가 사회계층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 방 법

###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강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고 실시되었으며(SGUIRB-A-2110-44), 국내 온라인 조사 기관 중 하나인 한국리서치를 통해 패널로 등록되어 있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20-60대 한국 성인 335명을 편의 추출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 167명, 여성 168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40.660세 ( $SD = 11.977$ 세)였다. 미리 구체적인 효과크기에 따른 표본 수를 계산한 후 표본을 수집하지는 않았으나, G\*power 프로그램(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을 통해 분석한 결과, 연구의 주요 설계인 6개의 예측변인을 가진 다중회귀 분석에서 335명의 표본은 80%의 검증력을 가지고  $f^2 = 0.024$  정도의 작은 효과크기도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표본임이 확인되었다.

### 측정 도구<sup>1)</sup>

#### 불공정 경험<sup>2)</sup>

참여자들의 불공정 경험은 스스로가 경험한다고 생각하는 불공정한 대우의 정도를 총 9 문항을 통해 측정했다(Williams, Yu, Jackson & Anderson, 1997). 참여자들은 4점 척도(0 =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 1 = 거의 경험하지 않는다, 2 = 종종 경험한다, 3 = 자주 경험한다)를 통해 응답했다. 예시 문항은 다음과 같으며, 본 연구자들이 원문을 한글로 번역한 척도를 활용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존중받지 못한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 “나는 위협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한다” (Cronbach’s  $\alpha = .883$ ,  $\omega_1 = .92$ ). 분석에는 9개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했다.

#### 체제정당화 신념

참여자들의 체제정당화 신념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Kay와 Jost (2003)가 현 사회체제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믿음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의 8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했다. 참여자들은 7점 척도(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 매우 동의한다)를 통해 다음과 같은 예시 문항들에 응답했다. “대체로 우리 사회는 공평한

- 1)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 및 추가 분석 결과는 <https://osf.io/hjyc4/>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만 본 연구는 불공정과 관련된 큰 연구 프로젝트의 일부에 속한 연구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 포함된 자료만 공개하였다.
- 2) 사회계층과 불공정 경험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주로 같은 실험 상황에서 남들과 다른 보상을 받는 것을 불공정한 상황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다르게 보편적인 상황에서의 불공정 경험을 측정하고자 했다. 따라서 해당 문항들을 통해 개인이 보다 일상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불공정 경험들을 측정하였으며, 일상에서의 불공정 경험을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경험이라고 보고 같은 상황에서 남들과 다르게 차별적인 대우받는 여러 상황들을 불공정한 상황으로 제시하여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개인의 경험 빈도를 측정했다.

것 같다”, “대개 한국의 정치 체제는 원칙대로 잘 작동한다”, “한국 사회는 사람들이 대체로 자기가 얻을 자격이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짜여 있다”(Cronbach's  $\alpha = .771$ ,  $\omega_c = .85$ ) 분석에는 8개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했다.

### 정신 건강

참여자들이 가진 체제정당화 신념의 수준이 개인의 정신적인 건강과 관련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기보고형 건강 지표로 널리 사용되는 MOS 36-item Short-Form Health Survey(SF-36; McHorney, Ware & Raczek, 1993) 중 정신 건강(Mental Health)을 측정하는 5개의 문항을 번역하여 활용했다. 지난 4주 동안 참여자 개인이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고, 예시 문항은 다음과 같다. “귀하는 아주 초조하였습니까?”, “귀하는 아무것도 당신을 즐겁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저조하였습니까?”, “귀하는 차분하고 평온하다고 느끼셨습니까?(역채점)” 참여자들은 5점 척도(1 = 항상 그랬다, 2 = 대부분 그랬다, 3 = 때때로 그랬다, 4 = 드물게 그랬다, 5 = 전혀 그렇지 않았다)로 응답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좋은 정신 건강 상태를 의미하도록 필요한 문항들을 역채점했고,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했다(Cronbach's  $\alpha = .837$ ,  $\omega_c = .89$ ).

### 사회계층

참여자의 사회계층은 주관적 사회계층과 객관적 사회계층을 모두 측정하였다. 참여자가 지각하는 자신의 주관적 사회계층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MacArthur 주관적 사회계층 척도를 활용했다(Adler, Epel, Castellazzo & Ickovics, 2000). 해당 척도에서는 10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사다리 이미지를 제시하고, 응답자가 속한 사회에서 자신을 포함한 직계가족의 상대적인 사회계층을 물었다. 자신의 주관적 사회계층이 최하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1, 최상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10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참여자의 객관적 사회계층은 만원 단위로 작성한 월평균 가

구 소득( $M = 638.730$ ,  $SD = 1330.524$ ) 및 9개의 범주로 측정된 학력 수준( $M = 7.300$ ,  $SD = 1.419$ )을 표준화한 후 두 변인의 평균값을 구해 객관적 사회계층 지표로 사용했다.

### 통제 변인

참여자의 성별, 연령, 정치적 성향을 통제 변인으로 사용했다. 정치적 성향은 진보-보수 차원에서 참여자의 정치적인 성향을 묻는 1개의 문항으로 측정했다(1 = 매우 진보적, 7 = 매우 보수적). 또한 객관적 사회계층을 변인으로 사용했을 때 통제 변인으로 삼입하기 위해 가구원 수를 측정했다.

## 결 과

### 기술 통계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단순 상관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들에서의 단순 상관 분석 결과를 살펴 보자면, 불공정 경험과 정신 건강의 부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r = -.379$ ,  $p < .001$ . 즉, 불공정 경험을 많이 하는 개인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등 정신 건강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체제정당화 신념, 주관적 사회계층, 객관적 사회계층은 각각 정신 건강과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r = .187$ ,  $p = .001$ ;  $r = .335$ ,  $p < .001$ ;  $r = .129$ ,  $p = .018$ . 즉, 체제를 더 많이 정당화하는 개인일수록, 주관적 사회계층 및 객관적 사회계층이 높은 개인일수록 정신 건강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사회계층은 체제정당화 신념과 정적인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고( $r = .299$ ,  $p < .001$ ), 이는 주관적 사회계층이 높은 개인일수록 체제를 더 수용하고 정당화하는 양상이 있음을 보여 준다.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관계 ( $N = 335$ )

	1	2	3	4	5	6	7	8
1. 불공정 경험	-							
2. 체제정당화 신념	.006	-						
3. 정신 건강	-.379***	.187**	-					
4. 주관적 사회계층	-.075	.299***	.335***	-				
5. 객관적 사회계층	-.033	.047	.129*	.257***	-			
6. 성별	-.148**	.037	.002	.070	-.026	-		
7. 연령	.035	.032	.205***	.053	-.035	-.006	-	
8. 정치적 성향	-.044	.005	.005	.064	-.002	-.120*	-.056	-
<i>M</i>	0.877	3.369	3.604	4.700	0	1.500	40.660	3.800
<i>SD</i>	0.502	0.828	0.773	1.642	0.737	0.501	11.977	1.144

주. \*  $p < .05$ , \*\*  $p < .01$ , \*\*\*  $p < .001$

성별: 1 = 남성, 2 = 여성

불공정 경험과 체제정당화 신념 간의 관계에서 사회계층의 조절효과

먼저, 불공정 경험의 정도가 예측하는 개인의 체제정당화 신념의 수준이 개인이 속한 주관적 사회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체제정당화 신념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사회계층과 불공정 경험, 그리

고 사회계층과 불공정 경험의 상호작용항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통제변인으로 성별, 연령, 정치적 성향을 삽입했다. 결과는 표 2-1과 같다. 우선 모형의 유의성 검증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6, 328) = 7.921, p < .001, R^2 = .127$ . 모형 분석 결과, 우선 체제정당화 신념에 대한 불공정 경험 및 주관적 사회계층 각

표 2-1. 사회계층과 불공정 경험이 체제정당화 신념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i>B</i>	<i>SE</i>	<i>t</i>	LLCI	ULCI	<i>F</i>	<i>R</i> <sup>2</sup>
불공정 경험	0.808	0.225	3.599***	0.366	1.250	7.921***	.127
(주관적) 사회계층	0.307	0.050	6.134***	0.208	0.405		
사회계층 × 불공정 경험	-0.166	0.045	-3.654***	-0.255	-0.077		
성별	0.008	0.087	0.093	-0.164	0.180		
연령	0.001	0.004	0.266	-0.006	0.008		
정치적 성향	-0.005	0.038	-0.137	-0.080	0.069		

주. \*  $p < .05$ , \*\*  $p < .01$ , \*\*\*  $p < .001$

성별: 1 = 남성, 2 = 여성

LLCI: 95% 신뢰구간에서의 하한 값, ULCI: 95% 신뢰구간에서의 상한 값



각의 주효과가 유의했다. 불공정 경험의 주효과 검증 결과부터 살펴보면, 불공정한 경험을 더 많이 한다고 응답할수록 체제정당화 신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0.808$ ,  $SE = 0.225$ ,  $p < .001$ , 95% CI [0.366, 1.250]. 즉, 일상에서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더 자주 받는다고 인지할수록 현 체제에 우호적인 신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사회계층도 체제정당화 신념에 대해 정적인 주효과가 있었다,  $B = 0.307$ ,  $SE = 0.050$ ,  $p < .001$ , 95% CI [0.208, 0.405]. 즉, 자신이 타인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계층에 속한다고 믿는 사람들일수록 현 체제에 대해 더 우호적이며 체제를 더 강하게 정당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불공정 경험과 사회계층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 -0.166$ ,  $SE = 0.045$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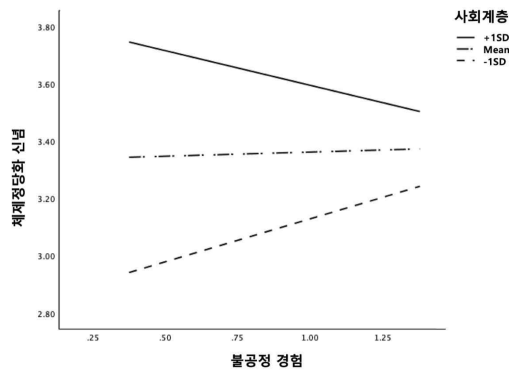


그림 2. 불공정 경험에 따른 체제정당화 신념에서 사회계층의 조절효과 그래프

95% CI [-0.255, -0.077]. 즉,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이 속한 사회계층에 따라서 불공정 경험이 체제정당화 신념을 예측하는 양상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의 해석을 위해 표 2-2와 같이 사회계층 별로 불공정 경험이 체제정당화 신념을 예측하는 기울기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낮은 사회계층에서는 기울기가 정적으로 유의했고( $B = 0.301$ ,  $SE = 0.110$ ,  $p = .007$ , 95% CI [0.084, 0.518]),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높은 사회계층에서는 기울기가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 -0.243$ ,  $SE = 0.118$ ,  $p = .041$ , 95% CI [-0.475, -0.010]). 즉, 낮은 사회계층과 높은 사회계층에서의 불공정 경험에 대한 체제정당화 신념이 상반된 양상으로 예측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예상한 바와 같이 낮은 사회계층(평균 -1SD)의 경우 불공정 경험을 더 많이 할수록 체제정당화 신념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들은 일상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더 자주 받을수록 현 체제가 정당하고 바람직하다고 믿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높은 사회계층(평균 +1SD)의 경우 불공정 경험을 더 많이 할수록 체제정당화 신념이 더 약하게 나타났다. 즉, 높은 사회계층에 속한 이들은 일상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더 빈번히 경험한다고 생각할수록 현 체제를 옹호하고 정당화하려는 양상이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사회계층의 조절효과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불공정 경험과 체제정당화 신념의 관계가 사회계층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Johnson-Neyman Plot을

표 2-2. 사회계층의 수준에 따른 단순 회귀선의 유의성 검증

		<i>B</i>	<i>SE</i>	<i>t</i>	LLCI	ULCI
(주관적) 사회계층	-1SD (3.060)	0.301	0.110	2.730**	0.084	0.518
	M (4.702)	0.029	0.087	0.339	-0.141	0.200
	+1SD (6.343)	-0.243	0.118	-2.056*	-0.475	-0.010

주. \*  $p < .05$ , \*\*  $p < .01$ , \*\*\*  $p < .001$

LLCI: 95% 신뢰구간에서의 하한 값, ULCI: 95% 신뢰구간에서의 상한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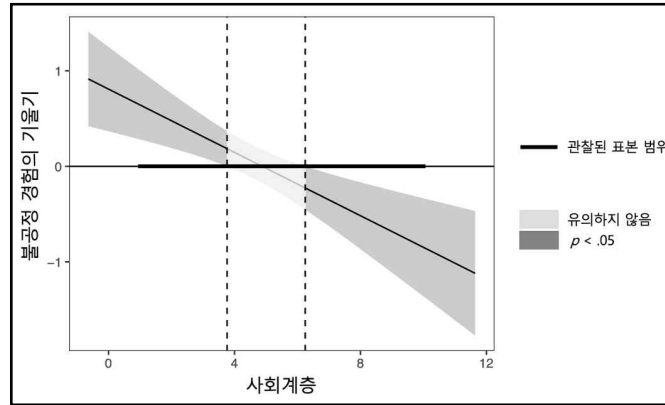


그림 3. 사회계층에 따라 달라지는 불공정 경험과 체제정당화 신념의 관계를 보여주는 Johnson-Neyman 그래프  
 주. 음영 처리된 영역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정리하자면, 낮은 사회계층에서는 불공정 경험을 많이 할수록 체제를 더 강하게 정당화하는 두 변인 간의 정적인 관련성이 나타난 반면 높은 사회계층에서는 불공정 경험을 많이 할수록 체제를 덜 정당화하는 부적인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불공정한 경험에 대해 낮은 사회계층에서는 현 체제에 수긍하는 소극적인 반응을 하고, 높은 사회계층에서는 현 체제에 대항하는 적극적인 반응을 한다는 본 연구자들의 예측과도 부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해당 결과가 객관적인 사회계층 지표에서도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검증을 진행했다. 같은 다중 회귀분석 모형에 주관적 사회계층 대신 객관적 사회계층 지표를 삽입하고, 추가적으로 가구원 수를 통제된 분석을 진행한 결과, 모형이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R(7, 327) = 0.377, p = .916, R^2 = .008$ . 이는 주관적 사회계층이 객관적 사회계층보다 여러 결과 변인들과 더 높은 상관 및 예측력을 가진다는 선행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보인다(Kraus et al., 2009). 따라서 추후의 분석에서는 객관적 사회계층이 아닌 주관적 사회계층을 조절변인으로 한 결과에 대한 서술에 집중했다.<sup>3)</sup>

불공정 경험에 따른 체제정당화 신념과 정신 건강의 조절된 매개효과

다음으로는 불공정 경험으로 인해 사회계층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체제정당화 신념이 개인에게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등의 적응적인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불공정 경험이 예측하는 체제정당화 신념이 개인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조절된 매개효과는 간접효과가 조절변인에 따라 다를 때 나타난다(Preacher, Rucker & Hayes, 2007). 본 연구의 경우, 불공정 경험이 체제정당화 신념을 통해 정신 건강에 간접적인 효과를 가지는 체제정당화 신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고, 이러한 매개효과가 개인이 속한 사회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3)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했던 주요 효과(체제정당화 신념에 대한 주관적 사회계층과 불공정 경험의 상호작용 효과 및 불공정 경험과 정신 건강의 관계에서 체제정당화 신념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통제변인을 삽입하지 않았을 때와 추가로 객관적 사회계층 지표와 가구원 수를 통제했을 때도 모두 유의했다. 따라서 본문에는 성별, 연령, 정치적 성향을 통제변인으로 삽입한 결과만 보고했고, 다른 결과들은 각주 1에 제시된 OSF 페이지의 추가 분석 자료에 보고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은 SPSS PROCESS Macro model 7(Version 4.1)을 통해 진행하였다. 해당 모형에 삽입한 변인들을 정리하면 독립변인은 불공정 경험이었고, 매개변인은 체제정당화 신념이었다. 그리고 불공정 경험이 체제정당화 신념을 통해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아 종속변인으로 정신 건강을 삽입했다. 또한 불공정 경험과 체제정당화 신념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사회계층을 삽입했다(그림 1). 마지막으로, 통제변인으로 성별, 연령, 정치적 성향을 삽입했다. 해당 모형에서 도출되는 통계치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5,000개의 표본을 이용한 백분위 부트스트래핑(Percentile 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는 표 3에 정리했다.

우선 해당 모형에서 매개효과에 대한 사회적

층의 조절효과를 수량화한 값인 조절된 매개지수는 -0.029였고, 95%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해석했다, 95% BootCI [-0.059, -0.008]. 구체적으로 각 효과들을 살펴보면,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체제정당화 신념을 예측하는 불공정 경험과 사회계층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종속변인인 정신 건강을 예측하는 변인들을 살펴본 결과, 불공정 경험 및 체제정당화 신념 모두 유의하게 정신 건강을 예측했다,  $B = -0.611, SE = 0.076, p < .001, 95\% CI [-0.760, -0.463]$ ;  $B = 0.173, SE = 0.045, p < .001, 95\% CI [0.084, 0.262]$ . 다시 말해, 매개 변인으로 삽입한 체제정당화 신념 뿐 아니라 해당 모형의 독립 변인이었던 불공정 경험 자체도 직접적으로 정신 건강을 예측했으며,

표 3.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 결과

	종속 변인: 체제정당화 신념				
	<i>B</i>	<i>SE</i>	<i>t</i>	LLCI	ULCI
불공정 경험	0.808	0.225	3.599***	0.366	1.250
(주관적) 사회계층	0.307	0.050	6.134***	0.208	0.405
불공정 경험 × 사회계층	-0.166	0.045	-3.654***	-0.255	-0.077
성별	0.008	0.087	0.093	-0.164	0.180
연령	0.001	0.004	0.266	-0.006	0.008
정치적 성향	-0.005	0.038	-0.137	-0.080	0.069
	종속 변인: 정신 건강				
	<i>B</i>	<i>SE</i>	<i>t</i>	LLCI	ULCI
불공정 경험	-0.611	0.076	-8.081***	-0.760	-0.463
체제정당화 신념	0.173	0.045	3.812***	0.084	0.262
성별	-0.097	0.076	-1.277	-0.248	0.053
연령	0.014	0.003	4.369***	0.008	0.020
정치적 성향	-0.006	0.033	-0.183	-0.071	0.059

주. \*  $p < .05$ , \*\*  $p < .01$ , \*\*\*  $p < .001$

성별: 1 = 남성, 2 = 여성

LLCI: 95% 신뢰구간에서의 하한 값, ULCI: 95% 신뢰구간에서의 상한 값

이는 불공정 경험을 많이 할수록 정신 건강이 나빠지는 유의한 직접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불공정 경험이 체제정당화 신념을 거쳐 정신 건강을 예측하는 간접 효과에서 조절 변인인 사회계층이 가지는 구체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회계층의 3개 수준(평균 -1SD, 평균, 평균 +1SD)에서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각각 검증했다(표 4). 분석 결과, 낮은 사회계층(평균 -1SD)의 경우 95% 신뢰구간의 상한 및 하한 값의 범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정적인 간접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B = 0.052$ ,  $Boot\ SE = 0.029$ , 95%  $Boot\ CI [0.007, 0.117]$ . 또한 높은 사회계층(평균 +1SD)의 경우 부적인 간접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 -0.042$ ,  $Boot\ SE = 0.025$ , 95%  $Boot\ CI [-0.099, -0.002]$ . 이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해석해보면, 낮은 사회계층의 경우 불공정 경험을 하게 되면 체제정당화 신념이 강해지고, 이는 높은 수준의 정신 건강으로 이어지는 간접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높은 사회계층의 경우 불공정 경험을 하게 되면 이는 낮은 수준의 체제정당화 신념으로 이어지고, 낮은 체제정당화 신념은 낮은 수준의 정신 건강으로 이어지는 간접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불공정 경험이 정신 건강에 대해 갖는 직접효과는 사회계층에 상관없이 모두 부적이었고 효과의 크기 역시 더 큰 것으로 보아, 낮은 사회계층에서 보이는 정적인 간접 효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경

험 자체는 정신 건강에 강한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요인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는 사회계층에 따른 불공정 경험의 정도가 예측하는 체제정당화 신념의 차이 및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불공정 경험에 따른 체제정당화 신념의 수준은 사회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높은 사회계층에서는 불공정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더 약한 체제정당화 신념을 가졌고, 낮은 사회계층에서는 불공정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더 강한 체제정당화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불공정 경험에 의해 예측되는 체제정당화 신념을 갖는 것이 개인의 정신 건강 측면에서 적응적인 전략인지 살펴보기 위해 불공정 경험에 따른 체제정당화 신념과 그에 따른 정신 건강을 예측하는 매개효과 및 사회계층의 조절효과를 조절된 매개 모형을 통해 검증했다. 그 결과, 높은 사회계층에서는 불공정 경험 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아진 체제정당화 신념이 낮은 수준의 정신 건강을 예측하는 부적인 간접 효과가 나타난 반면, 낮은 사회계층에서는 불공정 경험 수준이 높아질수록 강화된 체제정당화 신념이 높은 수준의 정신 건강을 예측하는 정적인 간접 효과가 검증되었다. 그러나 불공정 경험은 모든 계층에서 정신 건강에 강한 부정적인 직접효과

표 4. 사회계층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사회계층	조절 변인(사회계층)의 각 수준별 조건부 간접효과			
	간접효과 계수	Boot SE	Boot LLCI	Boot ULCI
-1SD (3.060)	0.052	0.029	0.007	0.117
M (4.702)	0.005	0.017	-0.025	0.042
+1SD (6.343)	-0.042	0.025	-0.099	-0.002

주. Boot LLCI: Bootstrap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서의 하한 값, Boot ULCI: Bootstrap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서의 상한 값, 매개변인: 체제정당화 신념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우선, 사회계층에 따라 불공정 경험에 대해 서로 다른 양상의 신념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해석해보면, 사회계층과 체제정당화 신념은 기본적으로 정적인 관련성을 보이는 것이 검증되었다. 즉, 높은 사회계층에 속한 개인일수록 현 체제가 정당하고 바람직하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체제정당화 신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즉, 높은 사회계층에 속한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현 체제를 지지하고, 낮은 사회계층에 속한 이들은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체제에 더 많은 불만을 갖는다. 이는 낮은 사회계층에 속한 개인의 체제정당화 동기가 이들의 자기고양, 자기 이익, 내집단 편향 등 다양한 동기와 충돌하고 그에 따라 감소되어 강하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다는 Jost 등(2003)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밝혀낸 바에 의하면, 체제정당화 신념에서 나타나는 사회계층에서의 차이는 불공정 경험을 많이 할수록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즉, 불공정 경험을 많이 할수록 높은 사회계층의 체제정당화 신념은 감소하고 낮은 사회계층에서는 증가했다. 이는 개인이 겪는 불공정한 경험이 사회계층에 따라 서로 다른 심리적 작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발견은 사회계층에 따라 불공정 경험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달라진다는 선행 연구들(Kim et al., 2022; Ding et al., 2017; Sawaoka et al., 2015)의 발견과도 일관된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에 한 발 더 나아가서, 개인이 일상에서 겪는 불공정한 경험들이 개인이 세상에 대해 갖는 신념 중 하나로서 체제를 정당화하는 동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혀냈다. 따라서 이는 사회계층에 따라 다른 심리적, 행동적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단서를 제공하는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이 갖는 체제정당화 신념이 개인에

게 어느 정도 적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정신 건강과의 정적인 관련성을 통해 밝혀냈으며, 특히 불공정 경험을 한 낮은 사회계층에서 갖게 되는 체제정당화 신념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다루었다는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불공정 경험이 체제정당화 신념을 통해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 매개 과정에서 사회계층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고, 불공정 경험에 따라 예측되는 체제정당화 신념이 정신 건강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낮은 사회계층에서는 불공정 경험을 하면 체제정당화 신념이 증가하고, 이는 더 높은 수준의 정신 건강으로 이어지는 간접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사회계층에서 불공정 경험을 더 빈번히 함에 따라 현 체제가 바람직하고 정당하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정신 건강이 증진되는 적응적인 효과를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불공정 경험 자체는 여전히 정신 건강에 대해 부적인 직접 효과를 강하게 갖기 때문에, 낮은 사회계층에서 불공정 경험에 따라 체제정당화 신념이 증가해도 불공정 경험의 악영향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낮은 사회계층에 속한 개인의 경우, 이들은 일상에서 불공정한 경험을 상대적으로 더 빈번하게 하며, 더 높은 건강 위험성을 갖고 있다(엄태완, 2006; 이미숙, 2005; Fuller-Rowell, Evans & Ong, 2012; Kessler, Mickelson & Williams, 1999). 따라서 체제정당화 신념이 낮은 사회계층의 정신적인 건강에 일정 수준 기여할 수는 있으나, 낮은 사회계층에서 나타나는 높은 수준의 모든 심리적 부적응을 제거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 결과는 체제정당화 신념 그 자체로는 낮은 사회계층에 속한 이들의 정신 건강 및 심리적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부적응을 완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개입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불공정 경험을 통해

나타나는 체제정당화 신념이 어떻게 불평등의 지속에 기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연구로서 사회적인 함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 따르면, 낮은 사회계층에서 불공정한 경험을 하게 되면 체제를 더 많이 정당화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체제정당화 신념을 갖고 현 사회를 긍정하게 되면 체제를 발전시키려는 동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적 재분배를 지지하지 않는 등(김태심, 2020) 사회적, 정치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Jost & Hunyady, 2005). 즉, 낮은 사회계층에 속한 개인들이 불공정한 경험을 했을 때,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본인이 불리한 지위에 있는 현 체제를 지지하게 되면 불평등한 자원의 배분과 불공정한 사회 체제의 지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체제정당화 신념이 개인의 정신 건강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를 기능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는 개인과 집단에게 득이 되고 생존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게 만든다(Smith, Cronin & Kessler, 2008; Van Zomeren, Spears, Fischer & Leach, 2004). 반대로 부정적 정서가 낮아지고 주관적 안녕감이 증진되면 집단적인 행동 의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존재한다(Ford, Feinberg, Lassetter, Thai & Gatchpazian, 2023). 따라서 체제정당화 신념이 가져오는 높은 수준의 정신 건강은 낮은 사회계층에서 자신의 이득을 위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그에 따라 체제정당화 신념은 정서적 측면에서도 사회적 불평등의 지속 및 심화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후속적인 연구 과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불공정을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는 경우 사회계층에 따라 체제정당화 신념의 수준이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후속적으로 어떤 심리적 기제에 의해 체제정당화 신념의 증가 및 감소가 나타나는지 검

증한다면 사회계층에 따른 서로 다른 심리적 과정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심리적 기제가 불공정 경험과 체제정당화 신념 간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계층에 따라 갖는 자원의 차이로 인해 체제정당화 신념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 높은 사회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심리적/물리적 자원을 갖고 있는 반면 낮은 사회계층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갖는다(Kraus, Piff & Keltner, 2011; Kraus et al., 2012; Lachman & Weaver, 1998; Stephens, Markus & Phillips, 2014). 따라서 높은 사회계층에서는 불공정을 경험했을 때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졌기 때문에 체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념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반면 낮은 사회계층에서는 불공정을 경험하게 되면 그에 맞설 자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체제를 수용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능한 매개 변인을 살펴보자면, 높은 사회계층에서 불공정한 경험을 많이 하는 경우 체제정당화 신념이 약화되는 것은 특권의식으로도 설명해볼 수 있다(Ding et al., 2017). 높은 사회계층에서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 더 많은 자원을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는 특권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Piff, 2014), 이들은 자신이 겪는 불공정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시정하려는 의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에 따라 체제를 정당화하려는 경향성 역시 줄어들고, 이의를 제기하려 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낮은 사회계층에서 불공정 경험에 따라 예측되는 높은 체제정당화 신념은 무력감으로 설명해볼 수 있다. Van der Toorn 등(2015)의 연구에 의하면, 개인이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을 때 체제를 정당화하려는 동기가 증가한다. 또한 평소 불확실과 불안정을 더 많이 경험하는 낮은 사회계층은 안정적인 질서와 구조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계층일 수 있기 때문에(Jost et al., 2003), 불공정한 경험을 했을 때 이러한 욕구가 더욱 증가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체

제정당화 신념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변인이 불공정 경험과 체제정당화 신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심리적 기제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 이를 검증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매개효과 검증과 더불어 실험 연구를 진행하여 변인 간의 인과성을 확인하는 연구를 후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공정 경험이 체제정당화 신념을 예측하는 모형 및 체제정당화의 매개효과 모형을 다루었지만, 변인을 조작하거나 종단적으로 측정하지 않고 한 번에 실시된 횡단 연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변인들 간의 관계가 본 연구의 모형과는 다른 대안 모형에 의해 설명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가 갖는 함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연구를 추후 실행하여 본 연구 결과를 재검증하고 변인 간의 구체적인 관계를 탐색해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경험하는 불공정을 주관적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가 사회계층에 따라 달라지는 불공정 경험 수준의 객관적인 차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낮은 사회계층에서는 높은 사회계층에 속한 이들보다 일상생활에서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수준의 차별과 불평등을 마주한다(Schmitt & Branscombe, 2022). 따라서 서로 다른 사회계층에서 불공정 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척도에 같은 응답치를 보이더라도 객관적인 경험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불공정한 경험을 똑같이 자주 경험한다고 응답했다더라도, 낮은 사회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겪는 불공정 경험은 높은 사회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불공정 경험과 질적으로 크게 다를 것이며, 그 심각성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이상문, 2008). 따라서 불공정한 경험의 강도 및 빈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후속적인 연구를 통해 본 연구 결과가 어떻게 달라

지는지 살펴본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주관적인 인식과 객관적 지표 모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인지, 혹은 객관적인 불공정 경험은 체제정당화 신념과 다른 관련성을 보일지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횡단 연구로서 변인 간의 관련성을 한 시점에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체제정당화 신념이 정신 건강을 예측하는 양상을 장기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후속 연구를 통해 검증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낮은 사회계층에서 체제를 정당화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않는 체제를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개인의 실질적인 이익 및 손해와 개인의 신념이 대립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대립은 장기적으로 개인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Harding & Sibley, 2013). 이를 종단 연구를 통해 검증한다면 체제정당화 신념의 장기적인 부적응적 역할에 대해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층에 따라 불공정한 경험에 대한 체제정당화 신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체제정당화 신념이 개인의 정신 건강에 적응적인 역할을 하는지 탐구한 연구이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계층에 따라 개인의 심리 과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들(예: Kraus et al., 2012; Stephens et al., 2014)과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인이 불공정을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게 되었을 때 체제정당화 신념의 수준이 사회계층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통해 이를 완화하고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증진시키는 데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저자 소개

김지수는 서강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사회심리학 전공으로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사는 사회계층, 불평등의 심리적 영향, 능력주의 신념 등이다.

김영주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박사후 연구원으로 경제적 불평등 및 사회계층의 심리적 영향과 행복을 연구하고 있다.

나진경은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문화, 사회계층 및 불평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희망연구소를 통해 희망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와 확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 참고문헌

김영주, 나진경 (2018). 불평등의 심리적 영향에 관한 경험 연구 개관: 경제적 불평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7(3), 313-347.

김태심 (2020). 공정한 불평등?: 체제 정당화와 재분배 선호. *평화연구*, 28(1), 129-167.

엄태완 (2006). 저소득층의 우울증에 대한 무망감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8(1), 59-85.

이미숙 (2005). 한국 성인의 건강불평등: 사회계층과 지역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9(6), 183-209.

이상문 (2008). 빈곤계층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3년간의 패널연구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3), 119-152.

Adler, N. E., Boyce, T., Chesney, M. A., Cohen, S., Folkman, S., Kahn, R. L., & Syme, S. L. (1994).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 the challenge of the gradient. *American Psychologist*, 49(1), 15-24. doi:10.1037/0003-066X.49.1.15

Adler, N. E., Epel, E. S., Castellazzo, G., & Ickovics, J. R. (2000). Relationship of subjective and objective social status with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functioning: Preliminary data in healthy, White women. *Health Psychology*, 19(6), 586-592. doi:10.1037/0278-6133.19.6.586

Brandt, M. J. (2013). Do the disadvantaged legitimize the social system? A large-scale test of the status-legitimacy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4(5), 765-785. doi:10.1037/a0031751

Caricati, L. (2017). Testing the status-legitimacy hypothesis: A multilevel modeling approach to the perception of legitimacy in income distribution in 36 nation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7(5), 532-540. doi:10.1080/00224545.2016.1242472

Caricati, L., & Lorenzi-Cioldi, F. (2012). Does status matter? Testing hypotheses from strong form of system justification theory. *Revue Internationale de Psychologie Sociale*, 25(1), 67-95.

Crockett, M. J., Clark, L., Tabibnia, G., Lieberman, M. D., & Robbins, T. W. (2008). Serotonin modulates behavioral reactions to unfairness. *Science*, 320(5884), 1739-1739. doi: 10.1126/science.1155577

Ding, Y., Wu, J., Ji, T., Chen, X., & Van Lange, P. A. (2017). The rich are easily offended by unfairness: Wealth triggers spiteful rejection of unfair offer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71, 138-144. doi:10.1016/j.jesp.2017.03.008

Durrheim, K., Jacobs, N., & Dixon, J. (2014). Explaining the paradoxical effects of intergroup contact: Paternalistic relations and system justification in domestic labour in South Africa.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41, 150-164. doi:10.1016/j.ijintrel.2013.11.006



- Faul, F., Erdfelder, E., Lang, A. G., & Buchner, A. (2007). G\* 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91. doi: 10.3758/BF03193146
- Ford, B. Q., Feinberg, M., Lassetter, B., Thai, S., & Gatchpazian, A. (2023). The political is personal: The costs of daily politic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25(1), 1-28. doi:10.1037/pspa0000335
- Fuller-Rowell, T. E., Evans, G. W., & Ong, A. D. (2012). Poverty and health: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discrimination. *Psychological Science*, 23(7), 734-739. doi:10.1177/0956797612439720
- Godfrey, E. B., & Wolf, S. (2016). Developing critical consciousness or justifying the system? A qualitative analysis of attributions for poverty and wealth among low-income racial/ethnic minority and immigrant women.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22(1), 93-103. doi:10.1037/cdp0000048
- Harding, J. F., & Sibley, C. G. (2013). The palliative function of system justification: Concurrent benefits versus longer-term costs to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3, 401-418. doi:10.1007/s11205-012-0101-1
- Hu, J., Cao, Y., Blue, P. R., & Zhou, X. (2014). Low social status decreases the neural salience of unfairness. *Frontiers in Behavioral Neuroscience*, 8, 402-413. doi:10.3389/fnbeh.2014.00402
- Jost, J. T. (2017). Working class conservatism: A system justification perspective.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18, 73-78. doi:10.1016/j.copsyc.2017.08.020
- Jost, J. T. (2019). A quarter century of system justification theory: Questions, answers, criticisms, and societal application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8(2), 263-314. doi:10.1111/bjso.12297
- Jost, J. T., & Banaji, M. R. (1994). The role of stereotyping in system justification and the production of false consciousnes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1), 1-27. doi:10.1111/j.2044-8309.1994.tb01008.x
- Jost, J. T., Banaji, M. R., & Nosek, B. A. (2004). A decade of system justification theory: Accumulated evidence of conscious and unconscious bolstering of the status quo. *Political Psychology*, 25(6), 881-919. doi:10.1111/j.1467-9221.2004.00402.x
- Jost, J. T., & Hunyady, O. (2005).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ystem-justifying ideologie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5), 260-265. doi:10.1111/j.0963-7214.2005.00377.x
- Jost, J. T., Ledgerwood, A., & Hardin, C. D. (2008). Shared reality, system justification, and the relational basis of ideological beliefs.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171-186. doi:10.1111/j.1751-9004.2007.00056.x
- Jost, J. T., Pelham, B. W., Sheldon, O., & Ni Sullivan, B. (2003). Social inequality and the reduction of ideological dissonance on behalf of the system: Evidence of enhanced system justification among the disadvantaged.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1), 13-36. doi:10.1002/ejsp.127
- Jost, J. T., Wakslak, C. J., & Tyler, T. R. (2008). System justification theory and the alleviation of emotional distress: Palliative effects of ideology in an arbitrary social hierarchy and in society. *Justice* (Vol. 25, pp. 181-211).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doi:10.1016/S0882-6145(08)25012-5
- Kay, A. C., & Jost, J. T. (2003). Complementary justice: effects of "poor but happy" and "poor but honest" stereotype exemplars on system

- justification and implicit activation of the justice mo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5), 823-837.  
doi:10.1037/0022-3514.85.5.823
- Kessler, R. C., Mickelson, K. D., & Williams, D. R. (1999). The prevalence, distribution, and mental health correlate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08-230. doi:10.2307/2676349
- Kim, Y., Jung, J., & Na, J. (2022). Socioeconomic status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responses to unfair treatments: Behavioral evidence of a vicious cycle. *Plos One*, 17(6), e0268286.  
doi:10.1371/journal.pone.0268286
- Kraus, M. W., Park, J. W., & Tan, J. J. (2017). Signs of social class: The experience of economic inequality in everyday life.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2(3), 422-435.  
doi: 10.1177/1745691616673192
- Kraus, M. W., Piff, P. K., & Keltner, D. (2009). Social class, sense of control, and social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6), 992-1004.  
doi: 10.1037/a0016357
- Kraus, M. W., Piff, P. K., & Keltner, D. (2011). Social class as culture: The convergence of resources and rank in the social real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0(4), 246-250.  
doi:10.1177/0963721411414654
- Kraus, M. W., Piff, P. K., Mendoza-Denton, R., Rheinschmidt, M. L., & Keltner, D. (2012). Social class, solipsism, and contextualism: how the rich are different from the poor. *Psychological Review*, 119(3), 546-572. doi:10.1037/a0028756
- Lachman, M. E., & Weaver, S. L. (1998). The sense of control as a moderator of social class differences in health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763-773.  
doi:10.1037/0022-3514.74.3.763
- McHorney, C. A., Ware, J. Jr., & Raczek, A. E. (1993). The MOS 36-Item Short-Form Health Survey (SF-36): II. Psychometric and clinical tests of validity in measuring physical and mental health constructs. *Medical Care*, 31(3), 247-263.
- Piff, P. K. (2014). Wealth and the inflated self: Class, entitlement, and narcissis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0(1), 34-43.  
doi:10.1177/0146167213501699
- Pillutla, M. M., & Murnighan, J. K. (1996). Unfairness, anger, and spite: Emotional rejections of ultimatum offer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68(3), 208-224.  
doi:10.1006/obhd.1996.0100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doi:10.1080/00273170701341316
- Sawaoka, T., Hughes, B. L., & Ambady, N. (2015). Power heightens sensitivity to unfairness against the sel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1(8), 1023-1035.  
doi:10.1177/0146167215588755
- Schmitt, M. T., & Branscombe, N. R. (2002). The meaning and consequence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in disadvantaged and privileged social group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2(1), 167-199. doi:10.1080/14792772143000058
- Smith, H. J., Cronin, T., & Kessler, T. (2008). Anger, fear, or sadness: Faculty members' emotional reactions to collective pay disadvantage. *Political Psychology*, 29(2), 221-246.  
doi:10.1111/j.1467-9221.2008.00624.x
- Stacey, B. G., & Green, R. T. (1971). Working-class conservatism: A review and an empirical study.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0(1), 10-26.

doi:10.1111/j.2044-8260.1971.tb00708.x

- Stephens, N. M., Markus, H. R., & Phillips, L. T. (2014). Social class culture cycles: How three gateway contexts shape selves and fuel inequalit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5*, 611-634. doi:10.1146/annurev-psych-010213-115143
- Takahashi, H., Takano, H., Camerer, C. F., Ideno, T., Okubo, S., Matsui, H., Tamari, Y., Takemura, K., Arakawa, R., Kodaka, F., Yamada, M., Eguchi, Y., Murai, T., Okubo, Y., Kato, M., Ito, H., & Suhara, T. (2012). Honest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erotonin and reaction to unfairnes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9*(11), 4281-4284. doi:10.1073/pnas.1118687109
- Van der Toorn, J., Feinberg, M., Jost, J. T., Kay, A. C., Tyler, T. R., Willer, R., & Wilmoth, C. (2015). A sense of powerlessness fosters system justification: Implications for the legitimization of authority, hierarchy, and government. *Political Psychology, 36*(1), 93-110. doi:10.1111/pops.12183
- Van Zomeren, M., Spears, R., Fischer, A. H., & Leach, C. W. (2004). Put your money where your mouth is! Explaining collective action tendencies through group-based anger and group effica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5), 649-664. doi:10.1037/0022-3514.87.5.649
- Vargas-Salfate, S., Paez, D., Khan, S. S., Liu, J. H., & Gil de Zúñiga, H. (2018). System justification enhances well-being: A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palliative function of system justification in 18 countrie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7*(3), 567-590. doi:10.1111/bjso.12254
- Williams, D. R., Yu, Y., Jackson, J. S., & Anderson, N. B. (1997). Racial differences in physical and mental health: Socio-economic status, stress and discriminatio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3*(3), 335-351.

1 차원고접수 : 2023. 06. 29.

수정원고접수 : 2023. 08. 11.

최종게재결정 : 2023. 08. 13

##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Cla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nfair Treatment and System-justifying Beliefs

Jisoo Kim<sup>1)</sup>      Youngju Kim<sup>2)</sup>      Jinkyung Na<sup>1)</sup>

<sup>1)</sup>Department of Psychology, Sogang University    <sup>2)</sup>Center for Happiness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urrent investigation examined whether socioeconomic status (SES) would moderate the relation between unfair treatments and the system-justifying beliefs (SJB). A sample of 335 Korean adults completed questionnaires assessing unfair treatments, system-justifying beliefs, and subjective SE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unfair treatments and system-justifying beliefs varied according to participants' SES. That is, among participants with higher SES, SJB decreased as they experienced more unfair treatments. In contrast, the pattern was reversed for participants with lower SES such that unfair treatment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SJB. Moreover, we also investigated how the predicted SES differences in the association between unfair treatments and SJB would be related to one's mental health, in order to examine the adaptive function of SJB. We found a significant moderated mediation effect. Specifically, unfair treatments were associated with decrease in SJB, which, in turn, were associated with decrease in mental health among higher SES participants. Conversely, for lower SES participants, unfair treatment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mental health, indirectly through increase in SJB. We also note that the direct association between unfair treatments and mental health was stronger (compared to indirect effect) and negative regardless of participants' SES in spite of positive indirect effect among lower SES participan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relation between unfair treatments and system-justifying beliefs varies as a function of one's SES and moreover, such SES differences could indirectly impact their well-being.

*Key words* : social class, system-justifying beliefs, unfairness, inequality